Since 1972 Chuncheon Holy City Movement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 11. vol. 228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02 특집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07 다음세대 / 칼럼
08 통일
내 백성을 보내라
09 선교
김수복 백근연 선교사
10 기관
춘천북부노인복지관
11 건강이야기
당뇨입니다
12 총회소식
13 교계소식
14 교회소식
15 잠깐
친이슬람 종교편향정책의 심각성
16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춘
춘천기독교연합회장 김종익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성시화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성시화선교대회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참여해주시고 지원해주시며 에써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그 어느때 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강하게 경험하였습니다첫째는 강사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 이수훈목사님은 전도에 온 삶을 건 분으로서 직접 노방전도에서 얻은 경험을 살려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질문하며 감동을 주는 관계 중심전도를 개발했고 이를 온 교회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전도동역자로 세운 것이 특장점이었다. 금년 2018년 10월 현재 전도하여 등록한 숫자만 432명을 찍고 있었습니다. 전도가 부담되고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시점에 신선함을 넘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에 정재준 장로는 관계중심전도를 개인적으로 1년에 100명이상씩 전도하는 삶을 나누므로서 개인전도와 교회중심 전도가 어우러진 집회였습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블레싱춘천 기도회에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던 이정훈 교수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대적하고 전투를 벌이는 십자가용사같은 분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둘째는 선교대회를 앞두고 추석명절을 맞게 되었는데 성도들의 수가 적어 힘들어 하는 목사님들과 원로목사님들을 위로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쌀 10Kg 50개와 사과 180박스를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천여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이라 주최측에서는 꿈 조차 꾸기 어려웠으나 교회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후원하고도 남는 성시화선교대회 역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 났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부어 주셨습니다

셋째는 일만인기도운동의 진전입니다. 춘천의 성도 일만명이 동일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며 시작한 운동인데 기왕이면 천원이든 만원이든 물질을 드리면서 기도하자고 하여 기도회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2017년에 월 120만원의 후원이 증액된데가 금년에 50여 만원이 증액되어 매월 고정적인 후원이 증액되므로서 성시화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위한 토대가 서서히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는 참다운 연합의 미를 나타난 선교대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연합회, 목회자연합회, 교경협의회, 홀리클럽과 장로회를 비롯한 연합체와 사회복지단체, 선교단체, 청소년그룹, 군선교회가 연합되어 하루씩 순서를 맡아 주심으로 연합의 의미를 살린점이 감사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읍니다만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같이 참여하므로서 진정한 연합선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기꺼이 열린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홀리클럽과 평신도들의 준비기도회와 연합회 임원들과 본부 임원들의 수없는 준비모임과 주선, 무엇보다 순복음 춘천교회가 열린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섬김것이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주님의 도우심과 복주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좋은 강사님들을 모셨는데 다함께 듣고 은혜받고 반응하면 너무 좋았을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한 내년을 꿈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글 | 박인관 목사(이사장, 광염감리교회)

2018 46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가 10월 7일(주일)부터 13일(토)까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춘천도성을 덮었습니다.
춘천성시에서는 지면 관계로 주강사 이수훈 목사님의 강의와 어린이꽃잔치가 정리됩니다.
간증이 포함된 생생한 영상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033-256-1260)

저녁 집회



▲ 주강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행1:8)"

첫째 날 10월 7일(주일) 저녁 집회

춘천 오면서 드린 기도

춘천 대회에 강사로 초빙되면서 기도한 것은, 춘천에서 전도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에 안은 사람,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집중된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30분 이내에 복음을 확실히 전하여 변화시키는 그런 용사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동역자가 춘천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전도는 나의 생명이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잘해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척할 곳을 찾아 시골로 가던 길에서, 벼를 심다가 모포기를 잡고 차 사고를 당한 할아버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도록 수고를 하고, 모포기를 하나를 놓지 못하고 죽는 인생,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우리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다른 생각 다 접어놓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보다 우선적이고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나의 생명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태신앙 30세 미만 교회 잔류 인원 5%, 한국교회 미래는?

산속에 개척을 하고, 4년 8개월 동안,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100명에게 전도했습니다. 3년간 한 사람 계속 만나면 결국은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89%가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진 농로에 예배를 마치고 차 나가는 시간이 40분이 걸립니다.

한국교회 통계를 보니, 모태신앙 30세 미만 교회 잔류 인원 5%입니다. 100명 낳아 손 붙들고 다녔는데, 5명 남은 것입니다. 부산의 30대 교회 추적했는데 9명 남았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앞으로 10년 20년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미국 남부지역을 투어 하면서, 대학교 기독교 통계 조사를 했는데,. 3% 남았습니다. 영국도 초토화 되었습니다. 무슬림이 린던 시장이 되었습니다. 독일도 주저앉았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추락세 입니다.

한국교회 고령화 역시 문제입니다. 경남의 한 교회의 초청받아 7번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모두 60대를 넘었습니다. 전남의 교회로 집회를 갔는데 그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750여 교회를 집회로 섬겼습니다. 서울 강남권도, 부산도 60대가 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목사님들이 안 놀랍니다. 헌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헌금이 들어오니 속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끊기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책적 사회적 흐름이 기독교 적대적 분위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교회의 전략은 있는가? 해결 방안은?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없는데, 긴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정신없이 출산 운동을 폈습니다.

전 교인 3명 낳기 운동을 했더니, 거의 3명을 낳았습니다. 지금은 5명 낳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 당진시내 12.3%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심방을 가면 축복 메시지를 하고, 계속 출산에 집중했습니다. 아기 낳는 여자만 찾았더니, 전 교인 평균 나이가 29세가 되었습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여자를 위해 한의사를 채용해서 불임 클리닉을 만들었습니다. 불임 연구해서 태어난 아기가 80명이 넘었습니다. 중보 기도해서 기적적인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불임여성들이 소문 듣고 찾아옵니다. 충청도는 도 예산을 세우고, 지역별로 한의사를 지정하여 불임여성에게 아기 낳을 때까지 도와주기로 정책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숙제가 아기 낳는 것입니다. 전국 지역의 교회가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가 전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무차별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출산은 5년 이내에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고령화되고 있고, 이미지는 나빠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꾼, 전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모든 시스템을 전도로, 모든 에너지, 모든 프로그램을 총동원해서 불신자들이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 하나 다는 것도, 찬양을 선택하는 것도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어합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고 너무도 쉽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하려고 덤비지 말라. 복음을 던져 놓고 스스로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눅15:22~30)"

둘째 날 10월 8일(월) 저녁 집회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섬기는 분은 누구인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 낮추시기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멈추고, 점검하고 기도하고, 멈추어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가 아닌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만 주님께 듣는다면 그 사람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과거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일에 마음과 중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성경은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펼쳐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을 쉽게 간과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4:34)",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요5:30)",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6:38)",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6:39)",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요6:40)". 구원의 모든 것은 아버

지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 아버지의 뜻을 교회에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위임된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남긴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참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지어다. 이 한마디를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에게 코드가 맞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큰 아들 아닌가?

본문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벌입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동네잔치를 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했습니다. 그 아들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기다리다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 나갔습니다. 새 신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사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했습니다. 반대로 큰 아들은 아직 유산을 못 받았습니다. 소를 잡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른 적이 없이 열심히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집 나간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내 식탁에 안방에, 내 직장 옆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찾고 싶어 애타 하는 그 사람을 날마다 만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는 사람을 봤는데 그냥 두었다면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은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도 않고, 특별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상황이 안 되어서 못했다는 큰아들처럼 자기 합리화하며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동생 때문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새 가족만 보느냐고 하는 큰아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찾기까지 찾는 목동의 마음, 여인의 마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찾아와야 합니다.

"온전한 길(벧후1:5~7)"

셋째 날 10월 9일(화) 전 세대 집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도 끝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은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추어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면 교회의 존재의미가 없습니다. 천하의 국가와 온갖 조직이 다 움직여도 영혼을 살리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도 하나로 어울려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달려가야 합니다. 제일 좋은 신앙인은 영혼을 살리는 꾼,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동원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에 집중된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으로 각양 은사와 능력, 팀도 주십니다.

'가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사람을 향해 끝없이, 매일 가야 합니다.

우리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보내면 가는 겁니다. 편지가 가다가 정서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수신자 앞에 그냥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영혼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그냥 만나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고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십니다. 이것이 출발입니다. 너무 버거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만나는 사람과 관계의 벽을 열어야 합니다. 사귐의 단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열기 위한 사귐의 단계가 중요한데,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닫히고 있습니다. 상대 영혼의 소리를 공감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소리 말고 상대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비로운 은혜의 단계입니다. 그 때부터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귐의 단계로 들어갈 때 낯가림이라는 걸림이 있습니다. 낯가림을 없애는 방법은 사람을 두려워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거침없이 가족에게 묻는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사귐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인간은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인데,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데도 바로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복음]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둠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 둠의 끝은 지옥입니다. 소경이 대낮에 담배락을 더듬는 것처럼 더듬고 있습니다. 인생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 늪에 빠져 삽니다. 성경에 빛이 어둠에 비취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요1:5) 라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어둠속에서 방황하는데, 어둠이 깊어진 사람은 그것이 어둠인지 모르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요3:19) 무릇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행26:18)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롬13:12)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엡5:8)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세상은 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둠이 뭔지 알았다면 나올 텐데, 어둠이 뭔지 모르기에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긍정적인 제 전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둠이 뭔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면 말해줍니다.

"어둠은 죄짓는 것, 악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모든 것이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축복의 대상을 전부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고립된 사람이 되고, 어둠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축복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픔이 되고, 남편이 복이 되어야 하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되었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나 보려고 한 밤중에 피터지게 날 뛴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어둠은 우리 힘으로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속에 허우적거려도 어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놀라운 도전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으로 무장하여 끊임없이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의 단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행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단은 한 사람이 등록하면 6명 이상의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의 동행관리가 허술합니다. 관계가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 한 사람이 들어오면 좌우에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방패막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 소중한 동행의 단계가 잘 되어 이 사람들과 있는 것이 행복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우리는 편지이기에 가야 합니다. 가서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통하여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은?(수14:12)"

넷째 날 10월 10일(수) 저녁 집회

성도들 마음과 영혼 속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성도들 마음과 영혼 속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할 것, 품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진 것이 미움입니다. 상처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미움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미움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튀어 오르는 분노, 분노는 우리를 삼키는 무서운 악의 축입니다. 두지 말아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돈을 마음에 품고 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이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 모든 죄와 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온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끌어내야 합니다. 자신이 인정해서 끌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안 나갑니다. 다 떨어 버려야 주님이 오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전도꾼이 됩니다

전도꾼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확실하게 증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던지, 그냥 지나치든지 합니다. 도리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풀려고 씨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과 연결시켜야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춘천시를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주여! 이 춘천 산지를 저에게 주옵소서. 춘천시에 술집이 싹없어지게 하옵소서. 음란, 거짓 위선자, 불신자가 없게 하옵소서. 모두 100%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 입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주소서. 아니면 이 심장을 거두소서." 이 믿음은 청교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춘천시를 믿음으로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믿음의 역사

저는 믿음의 역사를 봤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운 곳에 하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처음 보는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걷고 있는데,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더니, 예배당 안쪽에 폐병이 걸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왔다고 말씀드리니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왔으니, 주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또 갔습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일만 가는 자칭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없으니 전도를 해야 하는데, 폐병환자인 목사님으로 소문이 나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낮 시간에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한 아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나눠먹었습니다. 그 아이 집에 가봤습니다. 지하에 살고 있는데, 밥도 다 상해 있었습니다. 컵라면 하나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매일 만나 컵라면 친구가 되었습니다. 놀이터 가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는 왜 그만 두었니?라고 물으니, 그냥 안 갔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게 하려고 알아봤더니, 아이들을 괴롭히던 골목 깡패 같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에 망했고, 아이는 방치된 것이었습니다. 아이와 매일 만나니, 아이가 누구시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니, 그게 어려워요?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는 그게 쉬운 일이라고 하더니, 주일에 가도 되느냐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10명가량을 위험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계속 100% 출석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옷을 사주고, 반장을 시켰습니다. 반장이 되려면 30명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2명씩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1년 되니까 120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온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97.4.29에 그림 한 장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산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림속의 장소는 계곡 깊이 있는 밭입니다. 기도하는데, 5,000만 원짜리 땅, 3,500만 원짜리 건물이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동네 이장에게 부탁했더니, 산속으로 2km 들어가는 곳에, 5,000만 원짜리 땅을 5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고 신학교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6월8일에 계약을 하고 7월 15일에 잔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은 사당동 청년이 전세금을 가지고 와서 400만 원을 빌리고 아내가 100만 원을 주어서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 때부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텐트를 치고 땅값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7월 5일에 부산 학교 수업이 끝났고, 집에 가야 하는데, 성도 한 명인 이장님이 시험에 들까 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월 5일에 충청도 노회장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부산 동일교회가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시며 그곳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당회장실에 가서 인사드리니 왜왔느냐, 돈 가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4,500만원을 무작정 주시라고 했습니다. 3시간을 매달렸습니다. 목사님께서 2,000만 원 줄테니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응답은 100%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갑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골목길로 나오는 데 누가 소리를 지르며 오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 전도부장인 장로님은 초청주일을 앞두고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사라고 밝히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4,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만원을 급히 주며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주일에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선진들이 누린 믿음의 증거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후에 들어보니, 부산동일교회가 7년 전부터 개척하려고 1,000원짜리 헌금을 시작해 8,500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일을 주관했던 분이 저를 전도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개척은 하나님이 안 열어 주시니 은퇴하시는 사택 후원금으로 쓰기로 하고, 다음날인 7월 7일 제직회 때 결정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7월 6일 1시에 제가 간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놀라며 차비를 주었고, 7월 7일에 그 종이를 가지고 제직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교인이 기적적인 일로 인해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과 장로님이 그 땅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 후 은행을 통해 4,5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15일 12시에 땅값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 원씩 모으시기 시작할 때에, 저를 신학교를 보내셨고, 때가 되니, 어쩌면 금액까지 맞춰주시는지, 저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대충 살았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두 주간 동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 땅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성탄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골짜기가 예수촌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4년 8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100명을 전도하리라 작정하고 나갔습니다. 칡차를 달여서 가지고, 차를 마시는 사람마다 천국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4개를 개척했고, 학교를 사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와 복지관을 세웠습니다. 황무한 곳이 예수촌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현재 어린아이가 3,000명입니다. 태산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확장시키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과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는 또 믿음의 꿈을 꿉니다. 전국의 교회가 전도의 불,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 예수 나라가 되기를 꿈꿉니다. 일본이 복음으로 정복된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를 꿈꿉니다.

자녀교육 세미나

"흔들 수 없는 사람(단1:8~9)"

셋째 날 10월 9일(화) 오전10시

인재가 길러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우하사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애 하나 키우고 교육시키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위기는 한국의 건국 70년 동안 교육부 장관이 80명이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1년도 못하며 입시정책만 바뀌고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은 3% 리더십을 국가 전략적인 사람으로 길러냅니다. 거기서 나온 사람이 아베입니다. 일본정신을 고수하고 일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일본을 끌어갑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그룹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제대로 인재를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모태신앙 30대에 남는 비율이 5%입니다. 만약 기업이 100억을 투자했는데 5%만 남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는 방향성이 없는 교육을 끊임없이 매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름성경학교 틀만 봐도 기가 막힙니다. 해마다 선생이 율동 배우다 끝납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율동학교 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름성경학교 끝날 쯤 애들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제일 즐거웠어요? 물으면, 물놀이요라고 합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TV 틀면 기가 막히게 즐거운 프로그램이 널려 있는데, 주일학교를 매주 간다는 사실이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뭐 합니까 애들 불러 놓고 출석 부르고, 간식 나눠주고 설교했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설교하고 보람찬 주일을 보냅니다. 교사들은 피곤해지고, 열매가 없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고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무장시켜야 합니다.

일본을 유심히 들어 가보면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의리를 지키고, 무

사도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적 욕망이 가득 채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기복신앙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의식을 깨워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뿌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십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계명은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깨뜨릴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관리하십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고는 생각하지 않는 아이로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귀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세상이 소중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강력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 의식세계를 가진 사람, 철학을 가진 사람, 사상을 가진 사람 모두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어떤 것보다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무장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핵심 표어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역사를 걸어갑니다. 태어났는데 배다른 형제가 자기 위로 10명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서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위기가 있었으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했기에 죽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거절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거절을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거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거절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영혼으로 들어와, 성령의 옷을 입고 그 속에 역사하시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디에 놔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흐름과 제도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과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임신 전부터 엄마와 아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학교 성적, 공부, 세상 공부는 평생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팅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정직성이 믿음으로 묶어지고 나니까 평생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성령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시켜야 아이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목회자부부 세미나

"동역자는 있는가?(롬16:3~4)"

넷째 날 10월 10일(수)

교회의 위기 시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우하사 참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위기의 시대입니다. 교회는 고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처럼 담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5분도 안 되어 바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런 애들을 어떻게 깨워서 성도를 만들겠냐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젊은 세대들을 예수꾼으로 바꾸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배고프고 굶주리던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13절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를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도 배고픔을 벗어나면서부터 기도꾼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교단별로 목사들의 고충 거리를 조사했습니다. 재밌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10년 전의 목사가 가장 버거운 상대로 1등이 장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등이고, 2등은 사모입니다. 목회자에게 고충의 대상으로 사모가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목사가 1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모두 목회자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우려고 택함 받은 분들인데, 놀랍게도 가장 힘든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있습니까?

고난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겪은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이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도 어려워 서로에게 기대었고, 슬픔과 아픔을 같이 겪었기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편한데 쉽게 떠나갑니다. 동역자로서 함께 세워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명이 동역해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칭기스칸입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꼭 칭기스칸을 읽게 합니다. 칭기스칸처럼 함께 죽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함께 꿈을 품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청년과 청소년이 목회자와 꿈을 공유하고 교회를 위해 목숨 거는 세대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목회는 화려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손님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놓고, 제자들과 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란 함께 꿈을 품고, 꿈 때문에 같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칭기스칸의 후손 쿠빌라이 칸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 후손이 저 성곽 안에 들어가서 편히 쉴 때 우리는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꿈을 가진 동역자와 함께 끊임없이 새 일을 준비하며, 창의적 발상을 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변화되는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전략들을 교회는 계속 쏟아내야 합니다. 예배의 폼도 과감히 바꾸고, 모든 교회 시스템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뛰어 들어와 평생 그 길을 함께 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모든 교회들은 저만의 색깔을 내야 합니다. 찬양으로든, 위십으로든, 설교로든, 집중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노인전문 호스피스 교회를 개척하고, 달란트 있는 성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년들만 보면 흥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를 청소년 전문 사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비전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춘천이 살아나려면 그런 전문적인 교회들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 상황을 엮어서 사람을 담아내는 것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합니다. 함께 할 때 누리는 즐거움에서 동역이 일어납니다. 온 교인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이 마음으로 목사님과 일치된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땅의 것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기쁘게 따라가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원해서라도 십자가를 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가 무너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서는 동역자는 우연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시간입니다. 희생해야 동역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 되는 동역자가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리 | 이은정 사무국장



"어린이전도축제 "어린이꽃잔치"
마지막 날 10월 13일(토), 백령아트센터

갑자기 그 주에 날씨가 추워졌지만, 하나님은 어린이꽃잔치 당일 어린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추어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8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먹거리로 어린이들이 행복해하고, 사진도 멋지게 찍어 추억도 남기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복음으로 영적인 기쁨을 얻었습니다. 합창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재미도 있지만 감동의 메시지를 던져준 복화술, 뮤지컬은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꽃잔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꽃잔치를 홍보하기 위해 교회들을 방문하여 포스터도 나누어드리며 후원요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교회 방문 때는 담임목사님과 담당교역자분들을 뵈었을 때, 저희 사역에 대해 경청해주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린이사역을 귀하여 여겨주시며 축복기도도해주시니 방문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또한 행사에 앞서 한 주간 이사님들과 함께 아침 6시 30분에 모여 기도하고, 각자 맡겨진 초등학교 앞에 가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초청장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난 다는 게 너무 기쁘시다며 어린아이들처럼 기뻐하시는 이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모두 기쁨으로 감당하며 행복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된 상담교사 30명과 어린이들에게 맛있는 간식과 선물을 나누어주고 꽃잔치 전체적인 안내를 위해 헌신해 주신 50여명의 안내교사들, 특별히 중고등, 청년 선생님들이 많이 헌신해주었습니다.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다음세대인 중,고등학생들과 청년 선생님이 함께 해주어서 든든하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춘천지회 관할지역인 가평, 양구, 화천, 홍천지역에서도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함에 많이 걱정되었던 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쁜소식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꽃잔치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는 어린이, 교회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던 한 교사는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왔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어서 감사해요", 또한 상담교사, 안내교사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간증들을 전해 들으니 이번 어린이꽃잔치도 천국잔치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합니다.

(상담교사 김연경 집사 간증)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그것도 귀한 어린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전할 때는 나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_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귀한 사역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이꽃잔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린이꽃잔치 뿐 아니라 어린이전도협회의 어떤 사역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그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 김마태 전도사(한국어린이전도협회 춘천지부 대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2:20)

김한기 목사의 목요

실생활 영성 세미나

새생명교회 본당
(춘천 교육대학교 정문 맞은편)

영적으로 시달리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오셔서 문제해결 받으십시요.

개강 : 2018. 5. 3(목) 오후2시

일 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
강의내용 연약한 심령으로 인한 증세와 질병
등록비 회비 무료(자유헌금)
차량안내 춘천 이마트 (오후 1시)
남춘천역 (오후 1시 5분)
은혜성산교회 (오전 11시 30분)
모란역 (오후 12시)

강사 김한기 목사
새생명교회 담임
춘천엘림수양관 관장
CTS "상한마음의 치유" 설교자
CTS "빛으로 소금으로" 설교자
극동방송 "은혜의 동산" 설교자
C채널 "상한심령의 치유" 설교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새생명교회
춘천시 석사동 311-8 (춘천교대정문 맞은편)
☎ (033) 262-0190
(부설)엘림수양관 ☎ (033) 244-1270

다음세대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M원리 전략 전도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첨단 정보 기술이 기반이 되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 했다. 그러나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은 점점 더 인본주의의 영향이 커져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학원가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들이 합법화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특히나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이하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보듯이 다음 세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었고, 다른 세대(삿2:15)가 되었다. 학교는 복음의 사각지대,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말았다.

전도가 어려운 이 시대,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획기적인 전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것은 'M 원리 전략 전도'이다. 'M 원리 전략 전도'은 영성지수(Spiritual Quotient)를 활용한 전도 프로그램이다. 영성지수(SQ)는 지능지수 IQ와 감성지수 EQ에 이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영성지수란 인간의 존재, 삶, 행복 등에 대한 근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EQ에 영향을 주는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이다. 영성지수를 높이면 성적과 행복감이 높아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낮추며, 조직 성과와 생산성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시각이나 삶을 추구하는 목표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사고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영성지수는 실존, 초월, 의미, 관계, 내면, 의식 지능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성지수를 검사하고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사용 중이다.

'M 원리 전략 전도'는 영성지수에서 말하는 영성을 기독교의 영성, 하나님으로 확장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스마트 폰으로 영성지수를 검사하고 분석하여 상담해 주고, 영성 지수를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도대상자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

영성지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다. 지도사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획득한 다음에는 학교에 들어가서 인성지도, 진로지도, 맨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들과 직접 만나고, 복음의 접촉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성시화의 진원지인 춘천의 교회들이 'M원리 전략 전도' 영성지수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도의 용사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훈련하여 여호수아의 세대로 일으켜 참된 성시화를 이루길 소망한다.

글| 고정희 사모(주향교회)

칼럼

저출산의 진정한 해결방법

글| 이연희목사(아미교회, 편집위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산 문제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명령하셨다.

기독교인 수와 교회 수를 자랑하고, 선교사 수만 명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가적으로 저출산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

국가가 출산을 못하도록 산하제한을 하던 시대가 이었다. 이제는 출산을 장려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해결 방법은 어려운 일인가?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모습들이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나라가 텅 비어가고 있구나' 아이들의 수가 적고, 고령인구들로 구성된 지역들을 실제로 접하게 되면서 깨달은 안타까운 마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때와는 다른 마음의 심각한 절규를 담아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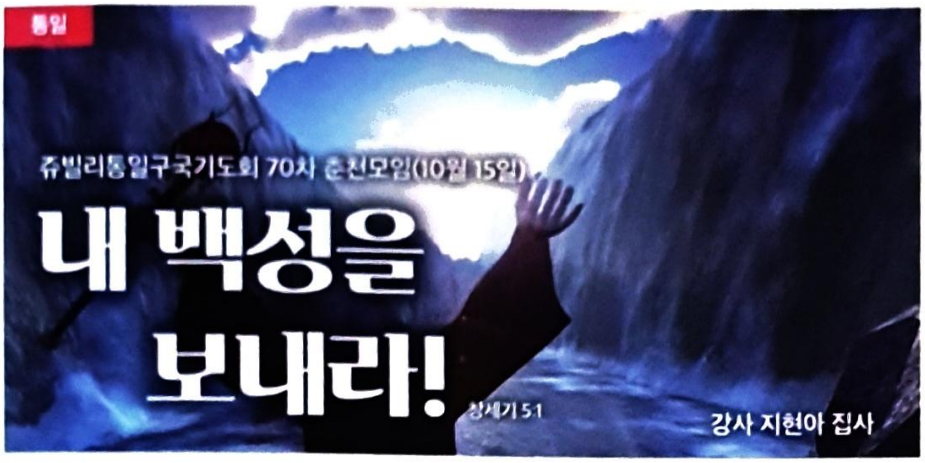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 주강사였던 이수훈 목사님의 동일교회 이야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결단을 촉구하였다고 본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하는 목회자와 교회의 현실 앞에 다윗의 물맷돌 같은 말씀들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특별히 저출산 문제가 국가 차원의 심각한 이슈로 등장한 시대에 '바로 이거다'라는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다.

3,800명의 주일학교 학생 수, 토요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해결하는 교회의 교육정책, 불임부부들을 위한 치료적 돌봄과 섬김이 출산 장려와 자녀 낳기 운동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은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충청북도 저출산 특별대책위원장을 위임받으면서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까지 확대되는 영향력과 리더십이 진정한 저출산의 대안이라고 믿는다.

근본적인 출산장려 운동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아니겠는가, 한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가 출산대책과 장려 운동을 보급하게 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꿈이요,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낳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와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저출산의 대안이요, 대책이 아닐까? 수당을 주고, 육아휴직을 배려하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한 대책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방법과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사람 세우기 정책이 국가에서 제시하기에 앞서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저출산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교육의 새로운 발견과 실천이 저출산을 탈피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이다. 한시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제한적 방법을 넘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청소년 세대, 젊은이 세대가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을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자녀와 일군으로 세워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어느 한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예산을 세우고, 투자하는 정책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힘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 창세기 1장부터 순종하는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나라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에서 만난 하나님

저희 가족은 바이올린을 전공하시고 지휘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남동생 포함 모두 다섯 식구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셨던 아버지는 16세에 북한으로 오셨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신 중국에 가서 쌀과 옷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오신 아버지는 가족을 모아놓고 남한 KBS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는 속고 살아왔으니 남조선에 죽더라도 가자고 했습니다. 그 후 두만강을 각각 넘었지만, 만나기로 한 곳에서 못 만나 아버지는 지금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 때 어머니와 우리들은 잡혀 북송을 당했고, 어린 동생들이 있어서 사상비판을 받고 끝났습니다. 이후에 여동생과 엄마가 다시 중국으로 갔다가 오시며, 북중 접경지역의 교회에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가 전해준 성경책을 쌀과 함께 몰래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처음 성경을 보았고 엄마의 소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친한 친구의 고발로 성경이 발각되어 잡혀가 고문을 받았지만 위기는 넘어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이후 저는 98년도 만18세에 탈북을 했습니다. 북송 3번 당하고, 4번째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생활을 1년간 했습니다. 감옥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잡혀왔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주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죽었습니다. 죽으면 꽃동산이라는 곳에 묻습니다. 다섯 시신 넣을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20구를 넣고 위에서 밟고 흙을 덮습니다. 그 후에 보면 개들이 팔을 물고 다니고 머리를 물고 다니고, 다리 물고 다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봄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죽어서도 개에게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그들과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입니다. 대한민국과 교회가 굳건해야 북한이 살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없으면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죽어 갔습니다. 저는 살아 나와서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북송 3번 4번 탈출 그리고 마취 없는 낙태

중국에 25만 명의 탈북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딸들이 일제 때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는데, 21세기인 지금은 중국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여성들이 낳은 국적도 없는 아이들이 몇 만명이 됩니다. 여성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나 지적장애인들에게 팔려가서 온갖 수모와 학대를 받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동생과 함께 중국으로 갔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쌀을 구해 오다가 엄마와 여동생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16살인데, 45살 사람에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팔려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로 북한에 북송되었습니다. 북한은 혼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산부에게 시멘트 자루를 메어 유산하게 하고, 8-9개월 임산부도 일을 힘들게 시키고 아기를 낳으면 뒤집어 놓아 죽입니다. 저는 마취 주사가 아깝다고 입던 옷으로 입을 틀어막고 책상에 붙잡아놓고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제 귀에 아이가 엄마 살려줘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는 잔인하게 죽어갔습니다. 아이를 잘라 집게로 꺼내 그릇에 놓는 소리를 듣는 것과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열방에 가서 북한의 백성을 위해 알려라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벌인가요?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냐 힘드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너무 아팠단다. 그 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에 가서 북한의 백성을 위해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고, 여동생은 14년 만인 31세가 되어 4살짜리 아이랑 왔습니다. 남동생은 꽃제비를 하다가 13년 만인 23세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죽더라도 가자고 하셨던 아버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는 목숨 걸고 북한 백성들에 대해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열방에, 심지어 유대인에게까지 알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탈북자 간증을 듣고 네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70년 동안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700만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600만명 학살을 추모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는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라고 쓰여 있고 사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학살된 사람들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나가서 증언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32,000여명의 탈북자들이 증거입니다.

복음적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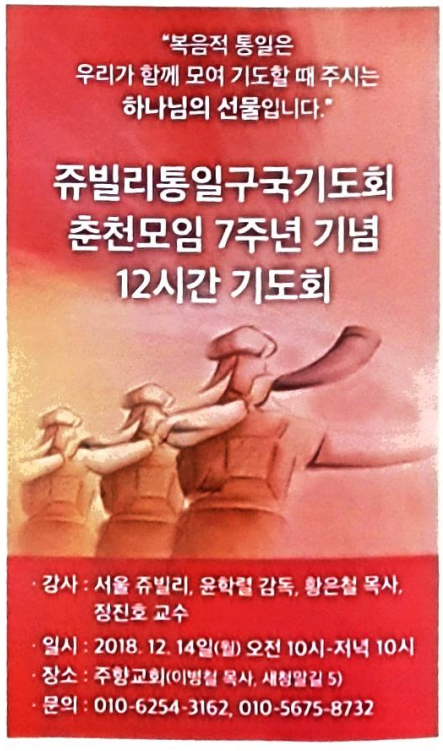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 되신 권위를 부여받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 권위를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북한에 있는 왕의 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영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북송과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보위부 사람들에게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형제자녀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수심과 아픔들을 치료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적 통일만이 이 민족의 아픔을 치료해주실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오기까지 역경이 많았고,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북한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삽 한 자루 들지 못했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에 70년간 포로가 된 2500만명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한 것처럼, 타협이 아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고 당당히 이야기 한 것처럼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로채고 주의 백성을 탄압한 악한 공산주의 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탈북자들은 단 한번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싶었고, 크게 기도 하며, 좋은 옷 입어 보고, 쌀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민은 간절히 원하는 자유입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과 자유를 지키고 싶습니다.

정리 | 이은정 권사(주항교회, 사무국장)



선교

서진의 대열에 서는 기쁨

김수복 백근연 선교사
거성교회 은퇴목사, 필리핀 아이따족 선교사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생활, 연금, 자녀 양육, 안정된 미래와 노후에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내면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을 때 존재의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되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창12:1-5)으로 나를 부르셨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보다 더욱 강렬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신학대학원에서는 처음으로 선교에 대해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선교사의 삶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신대원 졸업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춘천 거성교회로 발령(딤전4:6-16)하심으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다. 열정과 열심으로 좌충우돌, 노심초사, 동분서주 하느라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한다는 21년의 시간이 전광석화처럼 지나가버렸다.

아내의 암은 또 다른 부르심의 축복

아내의 두 번의 암 수술은 조기 은퇴와 선교사로의 삶을 살아내기 원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었으니 이 또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녀들은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여 노후를 편안하게 한국에서 지내기를 원하며 해외 선교사로 파송 받는 것을 반대했다. 아내는 생명의 주인은 암이 아니며 불편한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간내 담도암과 폐암만 바라보고 전전긍긍해야 하는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묵묵부답이지 않겠는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종족에게 나아가서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선교사를 도우러 갑시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합시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 아이따 부족과 함께 서진하기를 원하시는 대열에 섭시다(standing)."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하는 아내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으니 고맙고 기쁘기 짝이 없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올려 드린 Day and Night Prayer와 파수꾼의 기도

기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 일천번제기도, 수요기도, 릴레이기도, 21일 다니엘기도, 중보기도, 관상기도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도의 홍수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24시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그동안 사모하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기 위해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피곤에 절어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 파송예배



▲ 브엘세바에서 김수복(왼쪽) 백근연(오른쪽) 선교사



▲ 예루살렘 벧야후다 거리찬양



▲ 요단강에서 청년들에게 침례



▲ 필리핀 아이따족 교회



▲ 아이따 청소년 예배팀(매주 금요일) 500여명 집회 참석

향하여 세 번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특별히 마련된 기도의 방에서 찬양과 말씀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잠들지 않고 신랑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리다가 신랑 예수가 오셨다고 소리치는 파수꾼이 있었다. 성벽에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특별히 예수께서 태어나고 걸으시고 사역하신 땅에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많은 조국의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백척간두의 조국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다움이요 조국의 미래가 보이니 큰 기쁨이었다

선교지 아이따부족(피나투보 화산 폭발로 필리핀 정부에서 알게 된 소수의 종족)에게로

깊은 산속에서 과일을 따먹고, 야생의 뿌리를 캐서 먹고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 부족은 사실은 이름도 없었다. 이들은 화산재가 덮여 생계가 막막해지자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게 사람이냐 라고 표현했고 곧 이 부족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글도 없고 옷도 없고 심지어 식인까지 했다고 하니 얼마나 야만스러운지 알 수 있지 않은가!

이들에게 복음과 빵으로 다가선 선교사(박철환 선교사)는 15년의 시간 동안 37개의 예배당을 세웠고 현지 목회자를 양성한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열정적인 찬양과 율동으로 예배하는데 그 모습은 경이로움 자체이다. 이제 이들이 자신의 부족을 세워 나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을 향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서진할 날을 기다려본다.

마라나타!

기관





▲ 소그룹 재활운동



▲ 문화체험



▲ 커피장이 봉사단 발대식



▲ 신나는 놀이 한마당 놀이 윳



▲ 당구



▲ 충명학교 단체사진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의 미션은 "사랑이 가득한, 소망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지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의 기쁨입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관장 박재호)은 2017년 10월부로 춘천시로부터 순복음춘천교회 사단법인 사랑나눔춘천지회(대표이사 이수형 목사)로 수탁받아 2017년 11월 27일 개관하여 헌신적인 사랑으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년의 희망찬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한 미소와 향기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노인복지전문기관입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의 미션은 "사랑이 가득한, 소망이 있는, 기쁨이 넘치는 복지관이 되는 것"이며, 비전은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춘천시 북부권 복지기반 확충계획에 따라 우두동 소양초등학교와 강원도 재활병원 옆 큰길가 7100여㎡ 부지에 신축되었습니다(춘천시 충열로 124).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30㎡에 식당, 당구, 탁구, 바둑, 장기, 서예 등 여러 취미활동 공간, 물리치료실, 강당, 4개실 게이트볼장 등을 갖춘 종합복지시설입니다(1층: 레스토랑 반나, 상담실, 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어울림실, 2층: 당구장, 탁구장, 물리치료실, 체리단련실, 디딤실, 3층: 강당, 정보배움실, 목향실, 배움 1,2,3실, 지혜 1,2실, 카페 로맨틱). 복지관이 개관되므로 춘천시 신사우동, 신북읍, 서면, 동면, 사북면, 북산면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여가, 문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랑을 기본 이념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21세기 신(新)개념 노인 복지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로 노인으로서의 존엄과 자주적 삶의 주체로서 권리를 신장하고, 노인세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新)노년 문화"를 구축,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존중의 정서적 충족과 자아실현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나눔 실천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약 3,400여 분이 회원 가입하여 하루 평균 400여명의 어르신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300여명의 어르신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업으로 상담(일반,전문), 교육(단체,전문), 간담회(이용자, 사업), 정서지원(웰다잉,우울증,치매예방), 설문조사(욕구,만족도)를 통해서 회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전하고 의미 있는 여가활용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정보화교육, 취미여가, 교양강좌 분야 40여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당구, 탁구, 장기바둑, 게이트볼 교실, 체리단련실을 통한 <사율프로그램 사업>, 저소득

식사배달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을 통한 <위기독거노인지원사업>,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북부환경지킴이,노노케어사업단), 노인자원봉사단(커피장이봉사단,배식봉사단,도시락봉사단) 등 <노인사회참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인적 및 물적자원의 연계를 통해 복지관의 재원을 마련하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2차 연계망을 형성하는 <지역조직화 사업>, 물리치료, 경로식당, 촉탁의진료, 소그룹재활운동 등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어르신 및 지역사회 이웃을 돕기 위한 특성화 사업

복지관 특성화 사업으로 1.3 세대 교감을 통한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 및 지역 애향심 고취를 위한 1,3 세대 통합프로그램 <두빛나래 합창단>, 준·고령자 취업능력 향상을 통한 고용 촉진 및 사회적 박탈감이 감소하여 사회 참여도를 높여 활기찬 노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고령자취업프로그램 <잡(Job)-잇(It)기>, 황혼육아지원 프로그램 <헬미(Help me), 할미!>, 정서지원프로그램 <고운손뜨개단>,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교육>, <인지지원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사로는 설날 및 한가위날을 맞이하여 민속놀이를 즐기며 화합하는 <명절 행사>, 어버이날을 기리는 다양한 이벤트의 <어버이날 행사>,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탄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공감 행복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세대간 소통과 화합, 사랑과 존경을 나누고, 지역에 있는 기관, 업체, 학교, 개인 등이 동참하는 나눔릴레이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위기조손가정들을 지원함으로 조손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공식, 비공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다함께 꿈과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인사말



▲ 박재호 관장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노인 세대는 국가의 역사적인 어려움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닦은 자랑스런 세대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인생의 후배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이런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기찬 노후의 삶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후대에게 잘 전달되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취재 |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건강이야기



당뇨입니다..

이유 없이 살이 빠지거나, 입마름 증상이 심하고, 화장실에 자주 간다며 오는 환자들 중 많은 수는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게 된다.

의사로서 당뇨병이란 진단을 내릴 때 환자 표정을 보는 일은 어렵다. 환자의 얼굴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읽혀진다. '드디어 올게 왔구나,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이제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구나...'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나가는 환자의 뒷모습은 쓸쓸하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하게 되는 가장 큰 걱정은 당뇨병 합병증이다. 특히 가족 중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했던 이들은 더욱 그렇다. 당뇨병은 높은 혈당이 혈관을 서서히 막고 상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혈관질환이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대혈관 합병증과 소혈관 합병증이 있다. 큰 혈관들이 막히는 대혈관 합병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심장마비, 심근경색, 협심증 등)과 뇌경색, 뇌출혈 등이 있다. 그리고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소혈관 합병증에는 당뇨병성망막병증(눈의 망막에는 우리 신체 중 가장 작은 혈관들이 있어서 가장 쉽게 망가진다), 신부전(신장은 작은 혈관들이 뭉쳐 있는 혈관 덩어리다. 그래서 혈관질환에서 잘 망가진다.) 그리고 당뇨병발(신경주위의 혈관 손상으로 인해 감각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상처가 악화되어 발을 자르는 수술을 받게 된다.) 등이 있다.

비교적 자세하게 당뇨병 합병증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 질환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물론 일반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걱정도 많아지고 질문도 많아진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음식에 대한 것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뇨 식이요법에서 제한하는 음식은 없다.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가 있다. 단,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고, 적절한 양을 먹어야 한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 한 것과 소식이나 절식, 폭식을 반복하는 등의 식사는 당뇨환자에게 해롭다. 약을 통해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데, 식사가 불규칙하면 약의 용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 많이 먹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이 너무 강해서 저혈당에 빠지고, 조금 먹을 때를 기준으로 조절하면 약이 약해서 혈당이 조절 되지 않는다. 음식에 대한 원칙은 간단하지만 참 어렵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매일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좋다. 어떤 날은 과하게 운동하고 어떤 날은 움직이지 않으면 당 조절이 쉽지가 않다.

특정음식을 금하게 하는 것이 환자들에게는 편하다. 그러나 그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다. 물론 당뇨에 해로운 몇몇 음식은 있다. 바로 술과 과일과 음료수이다. 음주를 할 경우에는 자제력이 상실되고, 안주를 통한 칼로리 섭취가 많아진다. 과일과 음료수는 단순당(과당, 설탕 등)의 섭취를 늘려서 혈당을 많이 올린다. 그래서 술, 과일, 음료수는 당뇨 식이요법에서 섭취를 제한한다.

그러나 정작 당뇨병 생활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인 듯하다. 어떤 이는 자기 관리에 철저해서 식사와 운동과 약물 복용이 규칙적이고, 어떤 이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해도 식사와 운동이 불규칙적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도 있고, 당뇨가 진단되자마자 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질병보다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이 중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족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도 있다. 자신의 생활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을뿐더러 이러한 것을 바꿀 만한 특별한 방법도 없는 듯해서 의사로서 한계를 자주 느낀다.

20년 전만해도 당뇨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인슐린 제외)이 3종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6종류(인슐린 포함 주사제 제외)나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치료를 위해 당뇨약을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면(병이 심해지면 약을 순서대로 하나씩 추가) 지금은 각 개인의 특성에 맞게 약물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치료법을 사용한다.

당뇨약이 없어서, 약이 잘 듣지 않아서 합병증이 생기는 시대는 지나갔다. 예전에는 좋은 약물이 없어서 생활관리(운동과 식이요법)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역설적으로 약보다는 자신의 생활관리가 당뇨치료에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생활관리의 첫 걸음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많고, 직장 동료들과 잘 어울려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이도 있다. 나를 챙기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삶의 동기인 경우이다. 그러나 당뇨병은 만만한 질환이 아니다. 먼저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 우주에 단 한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며 바라보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다. 나는 그렇게 사랑 받을 만한 존재이다.

글 | 고석연 가정의학과 원장(예담교회 안수집사)

총회소식

제23차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

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수석부회장 김종호 목사(효자감리교회)
총무 김수일 목사(감사장로교회) 선출

제58차 춘천목회자연합회 총회

회장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수석부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총무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 선출



10월 26일(금) 오전11시에 춘천광명장로교회(김종익 담임목사)에서 춘천기독교연합회 제23차 총회가 열렸다. 먼저 오전10시에 춘천목회자연합회 제58차 총회가 있었다. 춘천목회자연합회 총회에서는 회장 홍요셉 목사의 사회로 개회가 선언되어, 부회장 조용아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회원점명과 인사말씀, 사업보고와 재정보고, 임원선출과 토의를 한 후 마쳤다. 2019년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에는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 수석부회장에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총무에는 차성회 목사(샘밭침례교회)가 선출되었다.

이어 열린 춘천기독교연합회 총회에서는 1부 예배로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사회, 회계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연합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의 설교 "예수를 바라보자"(히12:1-3)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은 후, "나라와 민족, 춘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 전임회장 괴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정기 총회에서는 연합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홍요셉 목사(에사랑교회)의 기도가 있은 후, 회순채택, 회원점명 후, 사회자의 개회선언이 있었다.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의 사업보고, 감사 김원중 목사(우리장로교회)의 감사보고, 회계 남준섭 장로(순복음춘천교회)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정관수정에서는 "제3장 조직(임원 및 임무) (2)항에 부회장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과 홀리클럽 회장을 넣고, (4)항 부총무에는 홀리클럽 총무를 넣는 것"에 동의, 재청으로 수정되었다. 임원선거에서는 2019년 신임회장에는 김종익 목사(광명장로교회), 수석부회장에는 김종호 목사(효자감리교회), 총무에는 김수일 목사(감사장로교회)가 선출되었다.

토의와 안건에서는 11월 9일(금) 오후에 춘천시장을 접견하는 것과 성탄트리 점등예배가 12월 2일(주일) 오후2시에 있을 것과,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회자의 폐회에 동의하며 2018년 정기총회를 마쳤다.

춘천기독교장로연합회 총회

10월 27일(토) 오후5시에 제일장로교회(김창성 목사)에서 있었다. 1부예배에는 김인수 장로(중앙성결교회)의 사회, 기도는 심의섭 장로(중앙감리교회)가 있었고, 김창성 목사(제일장로교회)의 말씀선포가 있었다. 2부 총회에서 2018년 신임임원에 회장은 심의섭 장로(중앙감리교회), 수석부회장에는 김인수 장로(중앙성결교회), 총무는 최돈식 장로(석사감리교회)가 선출되었다.

춘천장로교연합회 총회

2018년 12월 5일(수)

홀리클럽 총회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6시, 순복음춘천교회

춘천장로교연합회 총회

2018년 12월 5일(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회

2018년 11월 22일(목) 오전11시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총회

2018년 11월 28일(수)

교계소식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2018 춘천장로교연합 대부흥성회 개최



2018 한국장로교연합회 춘천지회(회장 김해영 목사)에서는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 춘천장로교연합 대부흥성회를 "개혁 나로부터"라는 주제로, 10월 28일(주일)부터 31일(수)까지 춘천제일교회(김창성 목사)에서 열었다. 대부흥성회 강사로는 임종구 목사(각은초장교회), 소강석 목사(세에덴교회), 김인중 목사(안산동산교회)가 초빙되었다. 시간마다 은혜로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말씀이 풍성한 성회가 되었다.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 체험 행사 열려 한정협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



한국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한정협) 주최와 춘천기독교연합회(신재원 목사) 주관으로 열린 탈북자를 위한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 체험 행사가 그리스도교단 중심으로 지난 10월 6일(토) 춘천그리스도교회(조영호 담임목사)에서 있었다. 먼저 춘천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 후, 춘천의 도시 역사 강의가 있었다. 그리고 섬김이들과 짝을 이루어 점심식사도 하고, 춘천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시간을 갖고 마쳤다.

할랄푸드(이슬람) 페스티벌 반대 집회 열려



지난 10월 18일(목)에 원주 한국관광공사 앞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서 모인 200여명의 기독인들이 한국관광공사의 이슬람 할랄 홍보 등에 21억원 지원하는 것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했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의견과 이슬람 종교편향정책 우려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후에 전단지를 나누며 거리행진을 하고 마쳤다.

취재 | 이은정 권사(사무국장, 주향교회)

춘천북부노인복지관, 2018 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 실시



2018 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가 10월 30일(화) 오전10시30분 춘천북부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세대간 소통과 화합, 사랑과 존경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복지사각의 위기 조손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사의 주최는 춘천MBC, 사)사랑나눔 춘천지회,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은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춘천시어린이집연합회, 후원은 춘천시,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일보, 춘천축산농협,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로타리클럽, 협찬은 춘천우유, 대원당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만기 춘천시 부시장, 김동섭 춘천MBC 대표이사, 이수형 목사(사랑나눔춘천지회 대표이사),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 등 다수의 기관, 단체장과 사회복지관계자, 시민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018 세대공감 행복나눔 문화대축제는 소양초등학교 1학년 1반의 난타, 춘성중학교 윈드오케스트라의 연주, 춘천중학교 윈드 앙상블의 관현악, 한솔어린이집 소나무반의 멜로디언, 월드비전춘천어린이집 튼튼이반의 장구 식전공연 후 국민의례, 내빈소개, 행복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있었다. 김동섭 춘천MBC대표이사의 개회

사, 이수형 사랑나눔 춘천지회 대표이사의 인사말, 한중일 춘천시의회 부의장의 축사 후 내빈들의 나눔릴레이 성금모금 퍼포먼스가 있었으며, 두빛나래 합창단, 사우어린이집, 사회문화어린이집,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월드비전춘천어린이집, 자작나무어린이집,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노래교실, 하늘어린이집, 한솔어린이집, 호반어린이집이 참좋은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두 곡을 합창하였다.

세대공감 문화공연에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의 난타, 춘천동부노인복지관의 부채춤,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크리샌도, 순복음춘천교회 빌립보찬양대의 합창, 춘천북부노인복지관 통기타반의 연주, 소양강새마을금고 합창단의 합창, 사랑샘의 크로마하프 연주가 있었다. 세대공감 나눔행사로 나눔봉투의 희망메세지 전시, 행복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세대공감 행복나눔 체험부스(약 30여개의 홍보, 나눔, 시식)를 설치하였다.

취재 |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 제16회 2018 나라와 강원도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 열려



제16회 2018 나라와 강원도를 위한 국가조찬기도회가 9월 8일(토) 춘천석사교회(손학균 담임목사)에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황병호 회장) 주관으로 열렸다.

제1부 예배는 김종익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광명장로교회)의 사회로 강철주 장로(상임부회장, 창대감리교회)의 대표기도, 서은아 장로(여성분과위원장, 석사교회)의 성경봉독이 있었다. 이어 권오서 목사(동부연회 전 감독, 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한택수 장로(국내선교분과 위원장, 온누리교회)의 봉헌기도와 봉헌에 이어 김진태 국회의원의 축사로 1부 예배순서를 마쳤다.

2부 기도회는 정상환 장로(부회장, 횡성감리교회)의 사회로 특별기도시간을 가졌는데,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는 홍요셉 목사(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 예사랑교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는 김용배 장로(부회장, 소양성결교회), "강원도의 도정과 발전을 위하여"는 임운식 장로(춘천홀리클럽 회장, 순복음춘천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격려사는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장을 대리하여 정균양 사무총장이 하였으며, 환영사는 손학균 목사(춘천석사교회)가, 인사 및 광고는 황병호 장로(회장, 제일장로교회)가 하였다. 내빈소개에 이어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이재수 춘천시장의 축전이 있었다.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교회)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취재 | 명예기자 명예기자 석광훈 장로(온누리교회)

교회소식

온누리교회

성경고사와 암송 및 찬양, 율동경연대회 열려

지난 10월 27일(토)에 온누리교회(김창환 담임목사)에서는 강원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전국대회 출전 선발을 위한 성경고사, 암송 및 찬양, 율동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10개 교회를 대표하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12월에 있을 5,000명이상이 참석하는 전국대회출전 자격을 얻는다.

가을! 새벽기도총진군

온누리교회(김창환 담임목사)에서는 10월 28일(주일) 헌신예배 부터 11월 18일(주일) 추수감사주일)까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시편 103:5)"이라는 주제로 "제48차 가을! 새벽기도총진군"을 갖는다. 이번 기도총진군은 1부는 5시 30분, 2부는 6시 30분에 열린다. 장거리도 마다않고 동참하는 성도들 포함해서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아침식사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기도총진군이 계속되고 있다.

취재 | 명예기자 최규성 목사(온누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 이수형 목사 "세례자의 축복" 설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는 지난 10월 13일(토) 오후 2시에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을 진행하였다. 강한 군사로 양성하고 배출하는 21사단 백두산부대 신병교육대에 있는 기드온군인교회에서는 월1회 진중세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언 1,200여명이 세례를 받고 있다. 이번 10월 21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식은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고, 21사단 기드온군인교회가 주관하여, 21사단 신병교육대 기드온군인교회에서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진중세례식에는 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 장로회, 총여선교회, 총권사회, 청년부 등 50여명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수형 목사는 "세례자의 축복"(행2:37~39)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세례를 받는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갖고 그 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멋진 인생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례 예식를 통하여 훈련병 200여명이 말씀과 세례, 축복기도를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제11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개최 지역화합의 축제의 한마당, 약 200여명 선수 참가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가 "제11회 순복음춘천교회배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를 10월 19일(금)~20일(토)까지 교육관 3층에서 이틀간 개최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가 주최하고, 탁구선교회(회장 김종열 장로)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춘천시내 탁구 동호회 22개팀 약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으며, 본 대회는 남자단체, 여자단체, 남자단식, 여자단식, 혼합복식으로 나뉘어져 진행되었다. 이수형 목사는 대회사에서 "춘천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하여 시작한 2008년 제1회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가 어느덧 올해 11년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11년 동안 약 2,100여명의 춘천시민들이 참여하여 춘천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대회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본 대회 참가 선수 모두가 경기의 승패를 떠나 동호인 간 친목과 우정을 나누며,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정근 회장(춘천시 탁구협회)는 축사에서 "매년 지역사회 섬김과 봉사의 일환으로 탁구대회를 개최해 주는 순복음춘천교회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님의 향기에 흠뻑 젖는 하루, 탁구 동호인들의 잔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대회장 외부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교구 전도대가 따뜻한 차와 간식(볶이,오뎅,부침개 등)을 제공하여 전도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총여선교회에서는 맛있는 점심식사를 준비하였다.

취재 | 명예기자 명예기자 석광훈 장로(온누리교회)

순복음조은교회

20주년 기념행사 음악회와 전도대회, 케냐 원주민 방문



순복음조은교회(오의석 담임목사)에서는 창립 20주

년 기념행사로 음악회와 전도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경숙 선교사와 케냐 원주민들이 교회를 방문했다. 첫 해외여행인 Geoffrey Mwangi목사님, James. Njau 목사님, Joseph kamau 마을 추장, WIIIY Wanganga 형제, IMMA자매 등이 동행했다. 동계올림픽이 열린 평창에서 미션하우스 방문,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원두막교회를 돌려보았다. 원두막교회 유래를 설명해주고, 그곳에서 케냐 복음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 명예기자 오의석 목사(순복음조은교회)

주향교회

TRUE WORSHIPERS 찬양 콘서트



TRUE WORSHIPERS(대표 추길호 목사) 찬양 콘서트가 지난 11월 2일(금) 오후7:30에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TRUE WORSHIPERS는 세계에 흩어진 한인 이민교회의 예배회복과 부흥을 위해 활동하는 찬양 선교팀이다. 전 세계에 클래식과 실용음악 전공자들로 180여명의 멤버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미주 44개 도시를 횡단하며 예배한 한국에 거주하는 멤버들과 추길호 목사로 구성된 12명이 팀을 구성했다. 금요일 저녁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어우러져 감사로 즐겁게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쥬이시 에이전시" 친선대사인 드보라 가나니 여사 방문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과 정착을 위해 일하고 있는 쥬이시 에이전시 친선대사인 드보라 가나니 여사가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를 방문하였다. 쥬이



시 에이전시는 이스라엘 정부에 소속된 기관으로 현재까지 귀환한 700만 명중 400만 명이 이 단체를 통해 알리아 했다고 한다. 그동안 주향교회가 이스라엘을 섬겨준 것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유대인 들의 이스라엘 귀환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드보라 여사의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에 손을 내민 것이며, 이에 주향교회는 함께 설 것을 약속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취재 | 이은정 권사(주향교회)

하베스트타임국제교회

열방 찬양의 밤 (Global Praise Night) 개최



'열방 찬양의 밤'이 지난 10월 5일(금)에 춘천시청소년수련관(YMCA)에서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의 주최로 열렸다. 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에는 20여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국제유학생, 원어민 교사 등)이 있는데, 이날 가나, 나이지리아, 콩고, 인도네시아, 중국, 서구국가 등 6개의 나라에서 온 공동체가 각각 찬양팀을 이루어 각 나라의 언어로 주님께 찬양을 드렸다. 한국 찬양팀으로 사랑의교회팀과 효사교회팀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연합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한국을 포함하여 다양한 나라에서 온 120여명의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열방을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을 각 나라 언어로 찬양하는 '열방 찬양의 밤'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취재 | 명예기자 박남신 선교사(하베스트타임 국제교회)

행사안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24일(토)
문화예술회관
문의: 033-255-2001

춘천통일광장기도회
11월 26일(월) 저녁8시
석사교 하천 공연장
문의: 010-8311-5373

예수원감리교회,
아프리카 잠비아 세포
어린이 내한 공연
12월 2일(주일) 오전10시
문의: 033-255-200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2018년 "사랑의 온차" 전달 행사,
12월 21일(금) 오전11시, 신성감리교회
(후원계좌 안내)
우체국 202051-01-002531 군선교강원지회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전도전략!
M원리 전도전략 공개세미나
12월 12일(수) 오전 10시~12시
주향교회(춘천시 새청말길 5)

강원지역 CAL-NET 포럼 에 동역자님을 초대합니다

[주제] 제자훈련과 영성관리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故 옥한흠 목사님의 말씀처럼 '성도들을 훈련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불타는 열정으로 진액을 쏟고 계시는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 '제자훈련과 영성관리'라는 주제로 (2018 강원지역 CAL-NET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영성이 회복될 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할 수 있고, 훈련된 제자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하시겠지만 꼭 참석해 제자훈련 목회자로서의 영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지역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 시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 10시~오후 3시 30분
장 소 태장성결교회 (김동오 목사 시무) 강원도 원주시 흥양로102번길 4
강 사 이기혁 목사 (대전새중앙교회, 전국 CAL-NET 이사) / 오생락 목사 (하늘평안교회, 강원지역 CAL-NET 대표)
참석대상 (1) CAL 세미나를 수료한 강원지역 목회자 / (2) 제자훈련에 관심 있는 강원지역 목회자
등 록 비 무료 (점심식사 및 도서 증정)
등록방법 11월 7일(수)까지 태장성결교회로 전화 등록 (033-742-6762)
문 의 춘천주향교회 (070-8633-0363) / 하늘평안교회 (033-262-8534)
출발시간 (1) 춘천주향교회 : 오전 8시 30분 / (2) 하늘평안교회 : 오전 8시 40분
실행위원 강문구 목사, 고정열 목사, 김동오 목사, 신재원 목사, 오생락 목사, 이병철 목사, 조주영 목사, 피상열 목사
주 최 강원지역 CAL-NET 후 원 전국 CAL-NET, 국제제자훈련원

시간표
10:00~10:40 등록 / 찬양 및 환영인사
10:40~12:00 "제자훈련과 설교" (옥한흠 목사의 설교를 중심으로) - 오생락 목사
12:00~13:00 기념촬영 및 점심식사
13:00~14:20 "제자훈련과 영성관리" (기도생활을 중심으로) - 이기혁 목사
14:20~15:30 자기 소개 및 질의 응답

※ CAL-NET은 1999년 1월에 열렸던 "제1회 제자훈련 지도자 컨벤션"에서 결성된 제자훈련 목회자 전국 네트워크입니다. CAL-NET 국제제자훈련원



정부의 할랄산업육성 및 친이슬람 종교편향정책의 심각성

박근혜 전대통령은 2015년 3월 UAE등 중동 4개국 순방 후,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하며 할랄단지 조성과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기도실 증설, 할랄식당 개설 및 할랄 도축장 건설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전국적으로 여러 시민단체들과 종교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익산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보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대구시와 제주도 및 강원도 등에서도 할랄타운 및 할랄파크 조성을 포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문제인 정부에서 한국관광공사나 교육과학부 등에서 또 다시 할랄산업육성을 계속 한다든지 무슬림기도실을 늘린다든지 또는 역사교과서의 지나친 이슬람미화 기술(중고교 역사교과서 종교 서술 부분은 거의 이슬람 홍보자료와 유사함) 등을 보임으로써 친이슬람종교편향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경제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이슬람종교편향정책은 현 정부가 힘주어 주장하고 있는 적폐청산을 하지 않고 그 적폐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슬람권은 세계의 화약고 라고 불리울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 및 살상 등으로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 중이다. 이것은 이슬람교가 경전에 교리적인 폭력성이 있기 때문이다.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동맹 60개국 중에 포함시키고 우리나라도 IS의 테러 대상임을 세 차례나 발표하였다.

2017년 한해 동안 IS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약 22,000명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를 십자군동맹 60개국 중에 포함시켰으며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임을 세 차례나 발표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IS에 의한 민간인 사망자는 약 22,000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오늘날 유럽에서 무분별한 이슬람 유입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우리나라 정부부처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보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슬람 유입의 부작용을 간과하여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무슬림들은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따라 전 세계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으로 만들 목적으로 행한다. 할랄산업육성은 박근혜 정권에서도 국민의 반대로 접은 재탕 정책이다. 할랄공식인증식당이나 무슬림 기도실을 늘린다고 무슬림 관광객이 더 많이 오지 않는다.

이슬람 원리주의자일수록 하루 5회 기도하기 위한 무슬림기도실과 할랄식당을 찾는다. 무슬림관광객은 관광시 할랄식당만을 찾지 않고 맛있다고 소문난 비할랄식당도 찾는다.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대학병원등에 기도처를 설치하고 할랄식품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원리의자를 불러들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무슬림관광객들을 위한 기도실 설치나 무슬림친화 식당을 늘리려는 정책은 유럽에서 추진하는 모스크 페쇄나 대학내 기도처 페쇄 등의 정책과는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다. 무슬림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공항·호텔 등 무슬림 관광객이 많은 곳에 기도편의시설을 설치는 것은 테러예방을 위해 유럽에서 애를 쓰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고기의 경우 할랄 도축은 현행 동물보호법 위반이고 많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입국통로가 된다. 영국의 경우 할랄도축을 하면서 파키스탄 할랄 도축사들이 5천명이나 입국하였다고 하며 할랄레스토랑 경영자와 종사자도 반드시 무슬림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무슬림 인구의 유입통로가 된다. 할랄인증은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할랄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는 할랄인증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업체에 2000만원 한도로 인증등록비의 50-9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할랄인증은 국내 120개 업체, 430개 품목에 달하며 할랄인증과 유지를 위해 기업을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킨다. 이는 종교편향없이 국가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가 특정종교 편향지원을 하는 것이다. 할랄인증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이슬람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미국과 캐나다 및 호주 등에서 할랄인증자금이 이슬람테러단체에 유입된 전황과 근거가 발견되었다(2014.1.21. 머니지하드 사이트).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정부 여러 부처의 할랄산업육성 지원 방안과 한국관광공사의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무슬림친화식당 늘리기 및 무슬림기도실 설치 확충, 지자체 무슬림 활성화 지원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한다. 정부정책을 감시 감독하고 바른 방향으로 예시하기 위한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부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공존에 반하는 이슬람 정치종교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테러방지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 내에 과격한 이슬람 종교사상의 유입을 방지할 대 이슬람 대책 테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장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전 세계의 시대적인 흐름을 인식하여 할랄 산업 육성 정책을 포기하고, 과격한 이슬람 종교사상의 유입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정부는 더 이상 무슬림관광객 수입 증대라는 경제논리에 소탐대실의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근시안적인 할랄산업육성정책 및 친이슬람종교편향 정책(교과서의 이슬람편향 포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청합니다.

글 | 전국이슬람대책시민연대, 이슬람대책강원도민운동

DPA Disciple 목회 아카데미 제1기 훈련생 모집

Heaven Peace 하늘평안교회

한국교회는 '성장병'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중병으로 인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Disciple 목회 아카데미)는 故 은보 옥한흠 목사님의 '한 사람 철학'을 기초로 한 성경적인 교회론과 제자훈련, 그리고 성교와 리더십 등을 1년 과정으로 훈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처음 시작하기에 미숙함과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개척(작은)교회 목회자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바르게 사역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대표 및 주강사 오생락 목사 / 하늘평안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설교학 박사(Ph.D), 칼넷 강원대표,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강 사 김동오 목사 / 태장교회 담임, 강원지방 코칭넷 코치, 강원 칼넷 실행위원
조상현 목사 / 강동교회 담임, 서울신학대학교 설교대학원(Th.M) 졸업
특별강사 정인교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독일 본(Bonn)대학교 신학박사(Dr.Theol.)
자문위원 이형로 목사(만리현교회), 정인교 목사(서울신학대학교), 이기학 목사(대전새중앙교회), 배창돈 목사(평택대광교회), 류병재 목사(시드니실로암교회)
이 사 김동오 목사(원주태장교회), 임채영 목사(서울서부교회), 이강덕 목사(제천세인교회), 조장현 목사(서울강동교회)

Disciple Pastoral Academy

| 선정 기준 |
(1)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 (2) '한 사람 철학'을 가진 목회자
(3) 갈라디아서 2:20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목회자
(4) 청장년 출석성도 50명 이하의 담임 목회자 (5) 위 과정에 따라 성실하게 훈련받을 목회자
(6) 졸업 후 2년동안 분기별 후속모임에 참석 가능한 목회자

| 신청 방법 |
(1) 이력서, 자기 소개서, 주보 등을 이메일 (zionvision@hanmail.net) 로 제출
※ 양식은 하늘평안교회 홈페이지 (www.heavenpeace.org) 에서 다운받음
(2) 신청마감 : 2018년 11월 19일(월) (3) 결과통보 : 2018년 12월 10일(월)
(4) 등록비 : 무료 (단, 아웃리치 비용은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하늘평안교회에서 일부 지원)
(5) 등록인원 : 10명

•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2019년 1월 31일(목) 오전10시
※ 전체일정(1년 과정)은 하늘평안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주최 | 하늘평안교회
장소 | 하늘평안교회 (강원 춘천시 후석로 11-6. Tel.033-262-8534)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올리클럽 (올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올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 2529 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 3180 5330 (지도 김귀선)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 6378 2261 (지휘자)

교회음악(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후평 2동 주민센터 뒤
(부안초교 근처)
시온 파이노 교습소

협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 8798 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g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 5372 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 5596 3702 (총무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돈지시장집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 4306 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 010 3585 3620 (이영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 7757 4972

민들레 중보기도회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8시
장소: 와이신협 3층 회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해옥 곽 한 국주영 권경애 권영자 권용인 권혁자 권혁채 권현정 김경순 김경아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메순 김명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리 김미숙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영명 김상옥 김생수 김설아 김성희 김세환 김수국 김수연 김수정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월 김순희 김영관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용배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의 김정희 김종녀 김종숙 김종옥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지훈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군 김태현 김학자 김현주 김형옥 김혜란 김화분 남궁영숙 남궁자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은미 노정호 류현구 문은천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갑출 박건섭 박금화 박금희 박노항 박덕남 박만규 박영관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인순 박병화 박상준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종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희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인 송정심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심규항 심성규 심효선 안순연 안한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여경구 연송흠 연정화 염은희 오성남 오제영 오흥금 오흥수 용애중 용영옥 원병열 원선미 원예술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열 유병준 유성현 유용근 유재란 유점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기촌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은은미 은정녀 윤정희 윤학병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자 이기환 이동호 이명선 이명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성도 이소영 이숙희 이순옥 이순자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윤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원일 이은규 이윤숙 이은주 이은경 이인숙 이재곤 이재선 이종완 이종헌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춘흔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옥 이효민 이희화 임덕수 임미화 임순희 임병용 임윤희 임인숙 임현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장형성 전양자 전윤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원순 조은비 조정십 조진경 조현옥 주명호 주신자 지은성 차재옥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대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순 최영희 최예샘 최옥순 최은영 최은숙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종대 최종인 최흥준 탁광희 하윤옥 한명수 한순득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선 함종현 허 엽 허인영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인숙 홍춘애 홍택기 홍혜림 황금심 황기현 황병찬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황태흠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금산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상감리교회 이미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의숨교회 주찬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담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물심감교회 화목교회 협동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협 영광한의원 메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갤러리 베드로선교문화센터 월드비전 실곡산기도원

※ 명단에 누락이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